

OPEC의 해외 精油部門 진출동향과 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 -

OPEC (석유수출국기구)의 해외정유부문 진출이 지난 '89년말 현재 150만b/d (원유공급계약 기준, 160만b/d)를 초과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90년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 형태와 내용면에서 '80년대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90년대

석유市況의 구조적 강세가 유력시됨에 따라 OPEC의 하류부문 진출의 메리트가 半減하고 있다. 한편 西유럽과 美國시장에서 진출한계에 도달한 OPEC는 東아시아를 다음의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日本을 東아시아진출의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최우선 공략지로 삼고 있다. '90

OPEC산유국의 해외 정유부문 진출 추이

(단위 : 천B/D, 백만달러)

	1983	1985	1986	1987	1988	1989	'83~'89
베네수엘라							
시설능력	107	320	231	65	65	153	1,013
투자비	70		370	90	75	661	1,766
원유공급	150	185	185	135		135	785
사우디아라비아							
시설능력					308		308
투자비					1,175		1,175
원유공급					550		550
쿠웨이트							
시설능력	132						132
투자비	460						460
원유공급	145						145
리비아							
시설능력							65
투자비							440
원유공급							100
총계							
시설능력	239	320	231	65	373	153	1,518
투자비	530		370	90	1,250	661	3,841
원유공급	295	185	185	135	550	135	1,580

* 수치는 연말기준임.

년대 OPEC의 해외하류부문 진출은 안정된 販路확보차원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80년대초부터 추진되어 온 OPEC의 해외정유부문진출 版圖는 4개국(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리비아)으로 좁혀지고 있다. 其他國은 의욕감퇴, 투자재원부족 등으로 소규모진출에 그치고 있다. 이들 4대진출국의 총 정제능력은 국내정유능력증대를 포함, 550만b/d에 달해 자유세계의 10%를 차지하게 되었다(OPEC 전체로는 15%).

그동안 하류부문 통합화의 차원에서 정유부문 확대를 추진해온 이들 4개국은 '82년 26%에 불과하던 통합비율을 1989년말 현재 60%로 확대시켰다. 이 비율은 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베네수엘라 114%, 리비아 32% 등). 기타 9개국은 31%에 머물러 있다.

OPEC의 下流部門진출 動機는 ① 원유의 안정적 판로 확보, ② 하류부문 이익의 共有, ③ 시장지배력 회복, ④ 통합화를 통한 上下流部門 수지균등화 등으로 대별된다. 그러나 최우선 동기는 상기 ①,②항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통합화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베네수엘라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先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0년대 공급압박시황의 예상에 따라 상하류부문의 균형이 비교적 고른 쿠웨이트(60% 내외)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財源부족으로 하류부문진출에 제한을 받는 이란, 이라크 등은 장기계약체결이나 시장연동가격제(예를 들어 넷트백) 도입을 통하여 시장위험을 회피해 왔다.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하고 대규모 수출잠재력을 지닌 이란, 이라크도 해외정유부문진출이 유력시되어 왔으나 자금부족으로 진출에 제한을 받아 왔다. 이들 국가는 주로 輸出精油業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까지는 하류부문 자산매입은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국의 총투자액은 38억달러에 이른다. 쿠웨이트(국내정유부문 高度化에 30억달러 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해외투자비중이 더 높다. 이러한 하류부문진출 덕분에 쿠웨이트와 베네수엘라는 1987년초 유가하락과 판매부진에 따른 매출감소를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었다.(PIW, 90.1.15)

한편 西유럽과 美國시장 진출의 한계에 도달한 OPEC는 이제 진출목표를 東아시아쪽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지역 진출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일본시장이 1990년대에 개방을 앞두고 있어서 진출가능성이 높아졌다. 同 지역 진출을 활발히 추진중인 국가는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융통성있는 지분참여정책이 오히려 日本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自國의 상류부문 개방을 조건으로 日本 하류부문 참여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유럽지역에서 판매부문 진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쿠웨이트는 호주, 태국과 같이 규모는 적으나, 急伸張中인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최근 泰國에서 12~15만b/d규모의 정유소매입을 신청중이고, 泰國와 호주의 주유소매입도 활발히 추진중이다. 쿠웨이트는 지금까지 소비국인 편에서 敬遠視되어 왔던 100% 지분참여정책에서 후퇴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80년대초 하류부문 통합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던 OPEC의 하류부문 진출은 석유산업 再統合이라는 궁극의 목표보다는 하류부문의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전체적인 석유산업균형의 차원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따라서 100% 지분참여보다는 경영권을 수반하지 않는 50% 내외의 참여가 主流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OPEC은 소비국 하류부문 진출과 함께 수출정유를 목적으로 한 국내정유부문의 투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에너지 동향)

에너지를 아끼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